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8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8월 11일  
 발 의 자 : 최호정, 정진술 의원(2명)  
 찬 성 자 :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 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공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한 신,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110명)

## 1. 주문

- 2022.8.8.일 서울 전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각종 시설물과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시민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 바, 신속한 복구를 통해 서울시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여 줄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역에 시간당 100mm,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 하천, 축대, 주택 침수 및 붕괴 등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예측불허의 집중호우의 자연재해까지 겹쳐 복합재난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이에 민·관이 온 힘을 합쳐 응급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정확한 집계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재난 상황 앞에 서울시 재정형편 만으로 감당키 어려운 실정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
- 다. 기타 : 없음

## 4. 이송처

- 가. 국회 :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나. 정부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8.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전역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1천만 서울시민의 터전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줄 것을 건의함.

지난 8월 8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동작구 신대방동은 1시간 만에 무려 141.5mm가 내려 1942년 8월 5일 관측된 서울지역 시간당 강수량 최고 기록(118.6mm)을 80년 만에 넘어섰음.

이는 서울시의 현 수방성능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서울 곳곳에서 도로, 하천, 축대, 주택 침수 및 붕괴 등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번 폭우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 6명, 실종 3명 등의 사상자와 3,16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기반시설에서는 하천범람 1건, 지하철침수 11건, 지하차도침수 26건, 도로침수 215건, 사면유실 12건, 축대 및 담장 파손 36건, 주택 및 상가침수 3,571건 등의 막대한 피해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1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중앙정부가 이번

폭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드리는 바임.

2022. 8.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